

할렐루야, 진정 나의 피난처요 요새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역을 맡겨 드리고, 의지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장 1-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2월 24일 (토) 제 1958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선교지에 기독교 화가와 음악가가 필요하다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로잔 글로벌 분석

몇 년 전 볼리비아 인디언 목장 일꾼들이 사는 한 마을 전체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 내 친구 선교사들은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직면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알게 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 대부분이 성경을 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노래를 부르도록 권할까? 그들의 문화적 표현에 예전(liturgy)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공동체의 어떤 관습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고백, 찬양, 경배를 표현해야 할까? 이 질문들에 대해 나의 선교사 친구들은 옳은 일을 했다. 그들은 볼리비아 인디언 신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표현을 만들도록 격려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합당한 의 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원주민들이 직접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진속하고 진실 어린 표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적절하고 현명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미한다. 참된 예배는 우리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공동체의 핵심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친숙한 표현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해방되고 변화된 그 마음에서 노래와 춤, 의식과 전례 및 장식의 고유한 표현이 샘솟게 된다. 또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종종 문맹으로 인해 많은 의사 소통이 필연적으로 예술적 또는 상상적 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 음악, 드라마, 스토리텔링, 그림, 건축, 마임, 인형, 공예, 축제, 운동, 의식, 음식, 장식 등은 공동체가 이를 통해 예배하고, 배우고, 제자 삼고, 축하하는 모든 형태의 예술적 표현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서구 세계에서 흔히 '예술'이라고 부른다)이

문화적으로 친숙하지 않다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 어렵고, 복음의 전달은 덜 효과적일 것이며, 공동체의 성장은 더딜 것이다.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 낯설고 어색하거나, 단순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술적 소통과 예술적 표현 전문가들은 종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원주민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진전시키는 데 중심 역할을 한다는 점을 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예술적이고 인간적인 표현 전문가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과 표현에 있어 비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목사나 교사, 음악가, 화가, 작가, 관리자, 공장 노동자, 농부 또는 주부일 수 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상상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모든 사람이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문화적으로 적절한 노래나 가사, 시, 이야기, 움직임, 시각적 표현, 환경적 감수성 등을 만들어 내는 미적 감수성의 비범한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또한 적절한 예술 형식과 방법을 예배나 가르침, 제자도 훈련, 전도에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비전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팀 켈러가 알려주는 공격적 변증법

기독교가 진리임을 원하도록 하라!

공격과 수비 없이 스포츠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수비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약점으로 공격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한다. 이 비유를 사용하면 변증에도 방어적 변증과 공격적 변증, 두 가지가 있다. 방어적 측면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반대하는 주장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옹호한다. 반대로 공격적인 변증을 통해 우리는 세상 세계관의 약점을 드러낸다. 수비에도 능했던 팀 켈러지만, 그는 동시에 공격적 변증의 이유와 방법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종교적 신념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라도 현실 속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핵심 사항에 관해서 많은 가정을 한다. 이러한 신념은 폭로되고 조사되어야 한다. 켈러의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이 가진 의심을 의심하라"이다.

공격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

기독교를 수호하는 대중 옹호자로서 켈러는 이 세상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비록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아이디어 시장'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켈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중 한 사람인 C. 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건 아주 작은 신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에 유의하자.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세계관은 고착해야 물질주의, 범신론, 그리고 유신론 세 가지뿐이다. **(6면으로 계속)**

기독교 음악가와 예술가의 중요한 역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머리로 듣고 이해하기 훨씬 전에 마음으로 듣고 이해한다.

(3면으로 계속)

-  **3면**
시론
민경엽 목사
-  **4면**
푸른초장
박희근 목사
-  **16면**
신앙독서 독후감 수상작
임보라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암)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Miju Holy City Movement
Whole churches unite to spread whole gospels to whole city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연합기도회

일시: 2024. 3. 3(주일) 오후 6시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주관: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긴장과 이완

이곳에서는 수시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경험을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부럭거리지? 시간이 없는데... 과연 언제?’... 또한 이곳에서는 긴장이 이완되고 안정감을 찾는 경

험도 합니다. ‘왔다. 움직인다. 들어간다. 이제 됐다!’... 과연 이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항공기 탑승 게이트입니다.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발 2~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서 탑승 수속을 하고,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화물을 위탁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 받고, 그리고 항공기 탑승을 위해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로 향합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여행자들이 감당해야 할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종종 탑승 게이트에 도착한 후에도 빈번한 비행기 연착이나 결항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증폭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휴가이거나, 직행이면 그래도 괜찮지만, 비행기 환승을 해야 한다면, 혹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출발지의 비행기 연착은 이미 느끼는 긴장감을 증폭시킵니다. 만일 이런 문제가 기상악화나 천재지변으로 생겼다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지만 비행기 기체의 고장, 전편 비행기의 늦은 도착, 승무원의 부족, 기장의 늦은 출근, 사라진 승객의 짐 등등... 비행사가 잘못 운영해서 생기는 연착과 결항은 승객들의 불만족 지수를 극도로 높입니다. 몇 년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미션 유럽에 참석했습니다. LA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데, 전편 비행기가 늦게 게이트에 도착해서 출발이 45분 연착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마드리드행 비행기로 환승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도착 게이트에서 환승 게이트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릴까? 어떻게 앞 좌석 승객들을 뚫고 빨리 항공기를 빠져나가자? 승무원에게 부탁하면 먼저 내리게 해 줄까? 다음 비행기를 놓치면 어떻게 하지? 나

로 인해 컨퍼런스에 지장이 생기면 어쩌지?” 생각할수록 점점 긴장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자, 승무원이 저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승객들이 먼저 내리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에 미리 준비된 밴에 탑승할 수 있었고 밴 기사님이 마치 Door to Door 서비스처럼 활주로를 가로질러 가서 환승 항공기까지 태워주었습니다. 무사히 다음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 비로소 고조되었던 긴장감이 이완되고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누구는 생활 속에 적당한 긴장이냐 스트레스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한 동의합니다. 삶에 아무런 긴장감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무책임해 집니다. 반면에 적당히 긴장할 때,

좀 더 조심하게 되고, 실수가 적어서 사고가 날 위험이 줄어 듭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긴장감이 필요할까요?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몸과 마음이 마냥 편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적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은 먼 추억과 같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영성을 잃어 갑니다. 반면에 영적인 긴장감은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우리 모두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삽시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과 쉼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푸/른/초/장



박희근 목사
(뉴욕동원장로교회)

혹시 이런 우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제목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몹시 사랑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 소에게 대접했습니다. 소도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고, 끝내 헤어집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어! 난 잘못 없어!”

양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열정은 있는데 신앙의 바른 지식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중에 그 후손인 웃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 법궤는 오벰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70년 머문 아비나답의 집에는 죽음의 결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결국 휘청거리는 삶이고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최고의 리더십을 보여준 지도자로 언

야 할 것입니다. 이집에서 탁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즐겨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언제나 축제요,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가슴과 영혼의 열정이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서 예수의 피를 뿌림 받아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 용서함을 받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제사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남김없이 다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제물을 남기지 말고 다 드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기름이란 하나님의 드러진 희생 제물인 동물의 내장이나 기름을 남김없이 다 불살라 제단 위에 화제로,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는 것

입니다. 셋째는, 첫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필요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먼저 떼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 아무 것도 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그때부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늘 첫 열매, 첫 시간, 첫 헌신, 첫 봉사를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며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이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신앙의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3:18-19



과이고, 3개월 머문 오벰에돔의 집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교훈이 있는 데 바른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 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고, 신앙생활의 길이 보다 얼마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신앙의 질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신앙의 연조(연수)보다, 교회에서의 직분보다 신앙의 태도(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보다 “바로” 를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삼상2:30)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경건이라 칼빈은 말했고, 이 경건생활의 첫걸음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이 바른 신앙, 살아있는

제나 일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지도자의 최고 자질)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를 시작할 때에 누구와 함께,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었던가요? 3장1절을 보면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양문부터 수리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부터 복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벽 재건을 마치고 신앙재건운동을 할 때에 그가 먼저 한 일은 제사장들을 복직시켜준 일입니다(7장1절).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즉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까? 이런 예배 중심의 삶은 성경의 인물 중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또한 그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바른 예배가 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가를 질문하면서 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몸을 보여 제사할 때 지켜야 할 원리를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예배의 네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희생의 피가 바르게 드러지는 예배입니다. (보혈의 능력)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구속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 우리는 보혈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물의 피를 대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곧 회개의 기도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겸손히 무릎 꿇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인데, 희생의 기름이 남겨졌다 것은 희생의 제사가 온전치 못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완전한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기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째 버려지고, 둘째 더럽혀지며, 셋째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기름덩어리, 곧 하나님께 드러지지 않은 돈, 시간, 건강, 재능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더럽히고, 썩게 하고, 망가뜨리는데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부라도 밖에 버려지거나, 더럽혀지거나, 썩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림을 위해 바칠 때,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축복해주는 것

어미젓으로 살아지는 새끼 염소의 모습이 어찌지 너무 불쌍해 보이진 않는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는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먼저는 부족한 죄인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다음은 죄인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젓으로 삼는 것처럼 잔인하고 무정한 인생을 산다면,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보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곧 신앙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주목하십니다. (요4:23) (대하16:9) 우리 모두 네 가지 요소를 실천하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고, 받은 은혜로 이웃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eepark91@gmail.com

신앙칼럼



차용호 목사 (센터빌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의 전도 방법(Jesus' Evangelism Method)

예수님은 전도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세상에 오셨습니...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자 (Evangelize to Those who are Close First)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범위와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전도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10: 7) 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福音)의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개하고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14: 6)입니다.

전도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Power Given to Those who Evangelize)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 영적 무기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마10: 8)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행 1: 8), (마28:20) 전도하는 베드로를 통하여...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도 갖가지 권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 전도현장에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Gives All Necessities to Those who Evangelize)

전도 할 떠나 전도여행을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라는 것입니다 (마10: 9,10)...

협력자를 찾으라 (Find a Coagent)
전도하러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를 찾아 그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찾아내었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행16:14)...

평안과 축복을 빌라 (Pray for Peace and Blessing)

전도대상자에게 평안과 축복을 빌어줍니다 (마10:12).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사용하는 "살롬"(sālm)을 말합니다...

전도하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대로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10:13). 남을 축복하면 남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십시오. 협력자와 VIP를 찾으십시오. 천국을 말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십시오.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시십시오. 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십시오...

노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접촉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남은 생애 동안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한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26)
골이 깊으면 산도 높아...

모든 사역에 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부모 사역엔 특별히 참가자들을 포함해 인도자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사역의 필요성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는 출석교회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 반면, 남자분들 중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좀더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때 먼저 인도자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인도자들도 역시 이혼이나 사별의 삶을 살아온 만큼 신앙으로도 결코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가 있어 작은 돌 뿌리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참가자와 부딪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 중 특히 여성들은, 자의로 이혼했거나 타의로 이혼했거나 상관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민자의 삶을 살아온 만큼 개성이 뚜렷하고, 인지 성격이 강해서 인지 의외의 언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앉을지라도 내게 받은 용서의 가치를 되새기며 용서하고자 할 뿐 아니라 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자는 내 취향에 맞는 사역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 중 몇 분이, "백세세상이 온다는데 어찌 그 오랜 기간 혼자 살겠냐?"며 동반자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릴 때, "주님 한번 바라보고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며 행여라도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제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신명기 10:18)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자를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혼자되어 안정되지 못한 싱글 남자분들을 나그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말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그들과 울고 웃을 때 힘든 만큼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뿐 아니라 하늘의 상도 클 것이라고 믿으며 한부모사역 인도자들께서 힘차게 전진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details like address, phone, and pastor info.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details like address, phone, and pastor info.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늘 우리러 사는 삶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우리러 사는 삶인 것입니다.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니다. 우리가 하늘 우리러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내 양심에 부끄럽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는 삶이 바로 하늘 우리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지자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법 때문에 딸이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할 때 막지를 못했습니다.

을 요구했더니 자기는 이런 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냉정하게 거절하더랍니다.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 지역 기독교교회협의회(이사장 민경엽목사/회장 박재만 목사), 장로협의회(회장 배기호 장로), 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 한인여성목사회(회장 김선옥 목사),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공동 주최로 열린 '제 10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17일(토) 오전 7시 2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학금을 전달했으며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뒤 은혜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디모데목회훈련원가 주최한 2024 LA 목회자세미나에서 이용걸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신의 목회현장에 잘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자리한 김영환 목사(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이 기도가 공동체와 동포사회를 변화 시키고 한미관계가 튼튼해져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기도가 되고 나아가 세계를 위한 기도가 되기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참석자 모두가 △ 나라와 민족을 위해(인도 박재만 목사), △ 기관 단체장 및 정치와 선거를 위해(인도 한기홍 목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한인 교계는 아동보호법 주민발의안 청원서 서명운동(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4, LA 목회자세미나

"바울의 겸손함, 눈물, 인내, 섬김의 자세 본받아야"

디모데목회훈련원(대표 이용걸 목사)이 주최한 2024 LA 목회자세미나가 '목회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 주제로 19일(월)과 20일(화) 양일간 베델교회(담임 김한호 목사)에서 열렸다.

많은 경우 현장목회 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실천신학 과목을 가르치기에 졸업 후 현장목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많은 경우 현장목회 경험이 부족한 교수가 실천신학 과목을 가르치기에 졸업 후 현장목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OC지역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우호 목사와의 후보 지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67지역 후보 이우호 목사

캘리포니아 67지역 하원에 출마하는 이우호 후보의 출정식이 지난 3일(토) 벨가든 국국재단 기도원에서 열렸다.

마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목사는 "교육문제만 아니라 근래에 2,600개의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지난 해에만 약 1,000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무교'는 항상 우리...

(10면으로 계속)

나의 논제가 정확하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상당수의 미국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이유가 단지 유행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면, 오늘날 무교의 급부상도 철저히 무종교성의 증가 때문이라고 보다는 항상 존재했던 무언가가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새로운 염소 판별기

다행히도 심각한 도전과 함께 기회도 찾아온다. 이전에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무교가 됨으로써 누가 '염소'인지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게 되었다.

미래에 염소들은 예수님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염소 판별기'가 1776년에 발명되었다고 상상해 보라.

(박준호 기자)

(10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기사관

뉴욕실버선교회,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자금 모금
뉴욕실버선교회는 2월 25일(주일) 오후 4시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튀르키예 지진 난민 선교 지원 자금 모금 연주회를 개최한다.

뉴욕실버선교회 2024 봄학기 개강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는 제 37기 2024 봄학기 2월 26일(월)부터 4월 29일(월)까지 10주간 뉴욕갯세마네교회(담임 이지음 목사)에서 개최한다.

뉴저지 새로운교회 한국학교 봄학기 등록
뉴저지 새로운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는 3월 3일(주일)부터 6월 2일(주일)까지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12주동안 2024년 봄학기 한국학교를 연다.

뉴브런스윅신학교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모금음악회
뉴브런스윅신학교는 3월 10일(주일) 오후 7시에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언더우드 세계선교센터 후원모금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목회적돌봄선교센터, 2024 봄 마음과 관계 웨비나 개최
목회적돌봄선교센터는 2024년 봄 마음과 관계 세미나를 '어릴적 외상 꼭 나쁜 것일까?'라는 주제로 3월 8일(금)에 동영상으로 업로드된다.

메릴랜드 기독교합창단원 모집
메릴랜드기독교합창단에서 합창단원(소프라노 5명, 알토 10명, 테너 10명, 베이스 10명)을 모집한다.

미주한인회, 청소년 문화탐방 학생모집
미주한인회는 미국에서 성장하는 한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뿌리, 한국의 역사, 한국의 얼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문화 탐방 10박 8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 '이훈 박사 장학생' 모집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12학년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훈 박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교회성장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컨퍼런스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 한국교회치유성장연구원(최귀석 목사)은 2월 15일(목) 오후 2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시무)에서 교회성장 심리치유 목회상담 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정관호 목사(뉴욕목사회 회장)는 "이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각자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개인적으로 건 강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강의를 통해 각자가 귀중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어져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치유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영적 파위가 실린 치유 설교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막막해하는 분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목회성장을 가로막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목회자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들의 탈선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에 처한 분들을 위해 세미나만으로는 마음의 치유와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우니 해당 분야에 집중한 강의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30년 동안 배운 치유와 회복과 교회 성장과 전도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3일 동안 에피소드를 전해주시니 3일만 동고동락하자"고 권했다.

(사)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1995년에 설립되어 1:1 내적치유법, 인간관계 갈등회복훈련, 부부갈등 치유를 통하여 상처 입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돕고 있는 상담연구원이다. (홍현숙 기자)



뉴욕교회, 제1차 부활절준비기도회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뉴욕교회, 제 1차 부활절 준비 기도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2월 19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베데스다교회(담임 김원기 목사)에서 제 1차 부활절 준비 기도회를 열었다.

박마이클牧사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행 3:6-10)는 제 목을 통해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세상이 관용과 용납 아래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시대에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잃어 버려서 안된다. 관용과 용납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부활절 연합세례예배를 위하여 이조엔 권사(이사장), 조국 한국과 미국의 부흥발전을 위하여 임지윤 목사(어린이분과위원장), 세계할렐루야대회와 교협발전을 위하여 양은식 목사(총무) 순으로 인도한 뒤 모두 일어나 죽은 영혼들, 교회들, 뉴욕도시, 온세계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

명과 기운 충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박준열 목사(부활절 준비위원장)가 마무리기도를 했다.

이날 박태규 목사는 "피아노를 반주할 줄 모르나 아는 곡만 나와 반주를 했으니 오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겸손한 마음을 전하며 피아노 연주와 함께 '내 주여 뜻대로'를 찬양했다. 또한 박목사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가지 좋지않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임원들에게 힘주셔서 더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다"고 인사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의 진행에 대해 총무 양은식 목사는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합류하지 못하는 교회들은 지역별로 개별 예배로 드리는 교회로 구분했다"고 밝혔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는 3월 31일(주일) 새벽 6시에 드린다.

제 2차 부활절 준비기도회는 2월 29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홍현숙 기자)



교회성장 심리치유목회 상담 전도 컨퍼런스 사진



정형신 목사가 탈북민교회의 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탈북민교회의 현황" 2024 뉴저지연합 북한선교집회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2024 뉴저지연합 북한선교집회가 2월 17일(토)부터 20일(화)까지 뉴저지에서 열렸다. 17일(금) 저녁에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에서는 북한선교대회 강사인 정형신 목사가(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탈북민교회의 현황"에 대해 보고를 했다.

정형신 목사는 85%가 북한 출신 목회자들로 구성된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소개하고, 탈북민교회의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를 나누었다. 그리고 "탈북민 교회, 탈북민 목회자, 탈북민 성도 -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를 주신 북한선교의 가장 실제적이고 분명한 열매"라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북한선교의 목적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전 단계로 남한 땅에서 북한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탈북민교회이다. 지금 한국에는 탈북민교회, 탈북민교회목회자, 탈북민 부교역자, 탈북신학생들이 '북한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 구성원의 85%가 북한출신 목회자들이다. 현재 50여 개의 탈북민교회와 120여 명의 탈북사역자들이 모여서 북한선교의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국내외 교회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북한 땅에 세워질 교회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무교'는 항상 우리...

(9면에서 계속)

그들을 진짜 믿는 양과 분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건 사실상 시종일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밥 존슨은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한다. "가장 확실한 전도 대상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다

종교 정체성의 새로운 변화는 전도를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 기독교에서 훨씬 더 정직한 자기 정체성이라는 무교로의 전환은 복음을 나누기 위한 보다 명확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들이 잠재적으로 문화적 가식의 장벽 없이 복음의 진리를 듣는 데 더 쉽게 마음을 열도록 하는 기회이다.

이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마 13:3-9)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다. 씨 뿌리는 사람은 다양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데, 그 결과는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다.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과 또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다. 그리고 일부는 좋은 땅에 심겨진다. 이 비유에서 무교는 문화적 기독교라는 가시가 제거된 땅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 그들의 땅은 이제 복음이 역사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by Joe Carter , TGC

피종진 목사 2월 부흥성회
1(목) 저녁 2(금)~ 3(토) 인천 물면동산교회(김천영 목사) 010-3721-4316
6(화) 저녁 대구 주간교회(조영림 목사) 010-8908-1487
7(수) 오후 8(목) 서울 강남순교교회(오승준 목사) 010-3926-8434
11(주) 오후 15(목) 오후 16(금) 오전
17(토) 오전 18(주일) 저녁 19(월) 오전 20(화) 오후 21(수) 저녁 23(금) 저녁 24(토) 오전
25(주일) 밤 26(월) 27(화) 28(수) 29(목)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에서 이인승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이 시대 교회의 개혁과 부흥' "성도의 중보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성국 목사)는 목회와 신학 포럼을 '이 시대 교회의 개혁과 부흥: 한국 복음주의 새로운 리더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12일(월)과 13일(화) 오후 4시(미서부시간) 줌으로 개최했다. 둘째 날 이인승 목사(다사랑의교회)가 '양육중심적인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인승 목사는 "목회사역을 하면서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데 교회마다 다양한 표현으로 집중하게 된다"며 "목회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환경, 그리고 기질에 따라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의 몸이 기운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와 인제로 부터 생기를 얻고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하고 "우리의 몸이 활력이 있으려면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지체가 자기역할을 해야 하듯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가 활력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은사들이 자기역할을 하려면 한명 한명

의 성도들이 온전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고 육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 즉 양육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예배하면 잘 드린다고 성장하지 않으며 소그룹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한 영혼에 초점을 두고 사역해야 하며 그러려면 소그룹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미나를 통해 사역에 있어서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목사는 "교회에 중보기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 기도는 목회자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며 기도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사라지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게 되며 교회 사역이 풍성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현 목회에서 겪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첫째 날 강의는 정갑신 목사(화성 예수향남교회 담임)가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에서 열린 제자부흥회에서 김우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 제자부흥회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라스베가스 커뮤니티교회(담임 이정환 목사) 제자부흥회가 지난 9일(금)부터 11일(주일)까지 김우준 목사(토론토는조은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정환 목사 사회로 11일(주일) 오전 11시에 열린 예배는 김우준 목사가 '제자의 기쁨: 내 기쁨은 다 어디로 갔을까?'(골 2:6-7; 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우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삶은 멋진 축제이다. 그 이유는 삶의 많은 고난과 아픔과 환란은 있으나 그 가운데 능동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역전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가 축제의 삶으로 불러주셨지만 즐거워 보이고 기뻐 보이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죽지못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선교여행을 가셔도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속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 아닌 그저 형식만 갖추게 될 뿐이다.

그래서 멋진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보일뿐 어떠한 감사와 기쁨도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경은 율법의 렌즈가 아닌 관계의 렌즈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와 마음이 읽히게 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님은 현재 우리 손을 잡고 동행하고 계시며, 미래에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해내는 것이 아닌 누리면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삶이라는 무대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능력 있고 신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우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부에나파크교회 천종호 판사 간증예배

"소년 범죄, 대부분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저지르게 돼"

부에나파크교회(담임 김성남 목사)는 '호통판사', '소년심판'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천종호 판사 간증예배를 11일(주일) 오전 11시에 드렸다. 이날 예배는 천종호 판사와 청소년(대학생 3명과 중,고등학생 10명) 총 13명이 지난 2월 5일(월)부터 12일(월)까지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천종호 판사와 함께 온 청소년들은 대부분 위기가정에서 잠시 이탈하여 소년재판을 통해 법무 명령으로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현재 판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만사소년'이라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성남 목사 인도로 열린 이날 예배는 심현식 장로가 기도했으며 Six Tringphil Guitar Ensemble이 특별 연주했다. 이어 천종호 판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12:1-2)'라는 제목으로 간증했다. 천종호 판사는 "부산 서구 아비동 까치고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와 인연이 없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 9남매가 한 방에서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자랐다. 교회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교회사에서 공부하며, 주말에는 교회에서 생활하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교회 생활 때문에 학

교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님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였다. 법조인이 되고 싶었고 서울에 있는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학력고사 성적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정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으로 부산대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지금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년원에 입소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며, 소년원 퇴소 후 그들을 받아주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회복 센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국회에서 청소년회복센터 예산을 편성하게 했으며, 사단법인 만사소년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세 곳에서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을 수용하는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며 "아이들을 위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천종호 판사가 간증하고 있다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예배에서 손병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주일예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함을 믿을 때 기적 일어나"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웅훈 목사)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예배가 18일(주일) 오전 11시에 거행됐다. 이번 예배는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가 강사로 참여하여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강웅훈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손대선 장로가 기도했으며 손병렬 목사가 '오직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요 20:19-2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병렬 목사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커스 하여 사역 하셨습니다. 12명을 선택하여 제자훈련을 하였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지내야 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였다. 우리 역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두려워하고 불

안해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365번 나온다. 세상을 보면 두렵고 연약한 나를 보면 두렵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신다. 교회는 평안의 공동체이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이고 예배를 통해 평안을 맛보아야 한다. 둘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것이다.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셋째 '성령을 받아라'이다. 성령 증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교회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새로운 50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손병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서부교계 게시판

2024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 효사랑교회(대표 김영찬 목사)는 2024 제11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 &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대상은 킨더부터 12학년까지이며 공모주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뭘까요?'이다. 제출기간은 3월1일(금)부터 25일(월)까지이며 제출양식은 글짓기는 레터용지 사이즈로 3페이지 12포인트이며 그림은 14"X17"이다. 참가비는 작품당 20달러이며 제출방법은 우편(7342 Orangethorpe Ave, Ste B 113, Buena Park, CA90621). 이메일(hyosarangus@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4월20일(토) 오후 2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다.

▲ 문의: (714)670-8004, 833-2710

Love in Spring 애나하임 가든 미니콘서트 Love in Spring 애나하임 가든 미니콘서트가 팀교회(1100 E Orangethorpe Ave, #201, Anaheim, CA)에서 3월2일(토) 오후 6시에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소프라노 신선미, 바리톤 장상근, 박트리오, 반주자 김주영이 출연한다.

▲ 문의: (714)853-0771

달라스중앙감리교회 임현수 목사 간증집회 달라스중앙감리교회(담임 배연택 목사)는 임현수 목사(서울 글로벌연합성교훈련원TMTCC) 간증집회를 3월1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 문의: (972)258-0991

한길교회 박종호 장로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집회 한길교회(담임 고광선 목사)는 박종호 장로 초청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집회를 25일(주일) 오후 4시에 갖는다.

▲ 문의: (323)735-0200

강찬 목사 찬양콘서트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는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 찬양콘서트를 3월1일(금) 오후 8시에 갖는다.

▲ 문의: (214)513-7707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 2024 미주한인침례교 선교대회가 3월 1일(금)과 2일(토) 양일간 타코마제일침례교회에서 개최된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와 타코마제일침례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선교대회의 주강사는 토드 레퍼티 박사(IMB 부총재)이며 일정은 1일(금) 오후 7시부터 9시, 2일(토) 오후 1시부터 9시. 한편 같은 날 어린이선교대회도 함께 열린다.

▲ 문의: ebae@imb.org, (804)432-6646



세미한교회 이은상 담임목사와 가수 이현우 집사가 기도하고 있다

세미한교회 가수 이현우집사 콘서트 은혜롭게 마치다 "복음,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야"

세미한교회(담임 이은상 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교민 콘서트를 지난 2월 9일(금)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수요예술무대', '불후의 명곡', '이현우의 음악앨범', '나는 가수다' 등 수많은 방송프로그램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 이현우 집사와 함께 가요와 간증과 찬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현우 집사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고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현우 집사는 '슬픔 속에 그릴 지워야만 해', '헤어진 다정 그레이스'를 불렀으며 이현우 집사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며 자주 듣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콘서트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함께 부르며 콘서트를 마무리 하였다.

이은상 목사는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교회 안의 일 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 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임을 전하였다. 이 목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항상 전해야 할 것인데,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가수 이현우 집사의 노래와 간증, 찬양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은상 목사는 "연예인이 크리스천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세상의 잣대는 더 까다롭게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애디든 발 벗고 뛰어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 한국교회 연합해 기도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개최

20일 오후 서울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대성전. 좌석을 가득 채운 7000여 명의 기도 열기로 예배당은 후끈 달아올랐다. ‘다음세대를 이음세대로’를 주제로 한국교회 다음세대지킴이 연합(한대연·공동대표 원성웅 이재훈 한기채 목사)이 개최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 현장이었다. 기도회는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기독교 인구 급감과 교회학교 추락,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한 성오염 위기 등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전반에 걸쳐 엄중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였다.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다시 일으켜 봅시다.” 한대연 공동대표인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외치자 참석자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통성기도를 이어갔다. 이어 4인조 가스펠 보컬 밴드인 크룩스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주님의 사랑’ 등의 찬양곡을 이어 부르며 기도회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진 특강에서 제약규 한동대 명예교수는 교회 내 다음세대 소멸과 저출산 문제의 해

결을 위한 열쇠는 교회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해법은 교회 내에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돌봄 프로그램”이라며 “돌봄 공동체를 운영하면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도움이 된다. 본인이 한동대 VIC 초중등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초등방과후 돌봄 공동체를 해보면서 깨달았고 이것이 전국 교회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니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찬수 분당우리교회 목사는 젊은 세대를 위협에 빠뜨리는 사탄의 ‘반복’ 전략과 극복 방안을 제시했다. 이목사는 “외국의 미디어 매체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 생소한 동성애와 동거 문화는 이 ‘반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단호한 태도를 닮아 다음세대도 동성애와 차별법 등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였다.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다시 일으켜 봅시다.” 한대연 공동대표인 한기채 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외치자 참석자들은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통성기도를 이어갔다. 이어 4인조 가스펠 보컬 밴드인 크룩스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호산나 ‘주님의 사랑’ 등의 찬양곡을 이어 부르며 기도회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진 특강에서 제약규 한동대 명예교수는 교회 내 다음세대 소멸과 저출산 문제의 해



교회를 돌봄센터로, 양육의 기쁨 주는 공간 만들자

예장합동, 연합기도회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 100일 기도행진 펼쳐

한국사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계의 입법청원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골자다. 이 같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100일간의 릴레이 기도운동도 펼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이정호 목사)는 18일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권순웅 목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명자 헌신예배 1차 전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회의 제도적 접근 방안이 눈길을 끌었다. 강유진 총신대 교수는 예장합동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본부장 이성화 목사)가 입법청원운동을 추진 중인 ‘건축법 개정안 제19조 3항’ 신설과 관련한 교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해당 조항은 ‘0~3세 영유아 보육시설 허가의 경우 복수 용도에 대해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영유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같은 방안은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와 교회학교 프로그램의 연계 방안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교회 소속 기도처 136곳을 포함해 교회를 돌봄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강 교수는 “돌봄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며 “기독교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에 교회가 자녀 양육의 기쁨을 제공할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도회는 4명의 연사가 ‘릴레이 특강’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사는 예장합동 직전 총회장인 권순웅 주다산교회 목사였다. ‘출산 사명’을 제목으로 강단에 선 그는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가 됐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여러 시책이 있고 많은 기관이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해법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목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출산의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예장합동 총회가 펼치는 100일간의 기도행진은 전국 6개 권역에서 이어진다.



“변화하는 시대의 물꼬 트는 선교 전략 논의한다”

엔코위 후속모임 이어가는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대림감리교회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 법인이사에 김경진(소망교회) 김병삼(만나교회) 박동찬(일산광림교회) 목사, 김중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 세계선교회 총무를 세웠다. KWMA는 지난해 개최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 후속 모임을 이어가며 한국 선교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KWMA 법인이사회의 이사장 이규현 수영로교회 목사는 인사말에서 “오는 9월에 열리는 세계복음주의권 로잔대회를 위해 부산 목회자들이 해운대 백사장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도회를 계획 중

에 있다”며 “KWMA가 다양한 형태의 선교 전략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물꼬를 트는 진지한 선교 방안이 담긴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기총회에서 강대형 KWMA 사무총장은 지난해 사업보고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연합사업 등을 보고했다. 특히 NS홈쇼핑 지원으로 50명의 은퇴선교사에게 매달 물품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올해에는 KWMA 산하 45단체 소속 47개국 148명 선교사에게 매달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WMA는 엔코위에서 논의한 세계 선교 방향성을 비서구교회 리더들과 함께하는 후속 모임을 확대·지속할 예정이다. 오는 5월 1~4일 방콕에서 열리는 비서구

교계 지도자들과 모임에 이어 오는 10월 경기도 가평 핑그림하우스에서 한국선교지도자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KWMA는 4명의 법인 이사에게 이어 운영 이사에게 김여호수(서울드림교회) 박완철(남서울은혜교회) 이재일(인천제일교회) 천영태(정동제일교회) 목사를 선임했다. 또 선교계에 모범이 된 12개 교회와 4개 기관, 18명에게 시상했다. 대림감리교회는 네팔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재난 지역에 적극 지원하며 재건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서울드림교회 대전제일교회 샘깊은교회 등이 다양한 선교 사업에 지속해서 참여했다. 미래희망가정연구소는 선교사 재정, 은퇴 후 경제 상담 등 다양한 선교 정보를 제공하고 ‘오이도포럼’을 개설해 선교사 가정과 사역자를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기총회에 앞서 KWMA 회장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목사는 “매력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목사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불의 이웃을 구제하는 선한 사역 등에 힘쓰며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 사랑을 받았다”며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전주예수병원, 캄보디아 예수병원 개소

캄보디아에 선진화된 의료 환경 구축

전주 예수병원(병원장 신중식)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캄보디아 예수병원을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캄보디아 예수병원은 내과와 안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진료를 담당한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파견한 정금모 소화기내과 과장과 이유경 간호사 등이 합류한

다. 약사와 병리사,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를 포함해 약 70명이 병원 개소를 준비했다. 신중식 예수병원장은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의료 진출 프로젝트에 전주 예수병원이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

을 캄보디아에 알리고 선진화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등 의료선교 병원으로서 글로벌 허브 병원 역할을 했다”고 평했다. 배좌섭 국제의료사업단장은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준비로 해외 병원 설립의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예수병원의 의료진과 전공의들은 2014년 캄보디아를 방문해 사랑의 인술을 펼쳤다. 3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을 제공했다. 김병선 예수병원 홍보실장은 “10년 전 캄보디아에서 전공의로 의료봉사를 시작할 때 막연하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그런 막연함이 현실이 되어 캄보디아에 지속 가능한 선진화된 의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기쁘다”고 개소소감을 밝혔다.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scenic campus view with a fountain. Text includes: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경영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교육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mission 선교의 창 (23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사도행전에 나타난 2가지 선교 모델

선교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은 그 중심에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선교 모델이 있다. 그것은 사도적 선교 모델과 대중적 선교 모델이다. 근대 이후 개신교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사도적 선교 모델을 근간으로 사역해 왔다. 또 다른 한 축은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그들은 교회의 파송이나 후원을 받지 않았으며 자연인으로서 자기 직업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마치 바람결에 흩날린 들꽃씨를 연상케 한다. 이런 야생적 선교 모델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COVID19 이후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각 족속과 나라들의 선교환경은 창의적 접근 지

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는 사도적 선교 모델의 전형이다. 이러한 사역의 패턴은 근대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 선교 여행은 다음과 같다. 바울은 총 14년 동안 4번에 걸쳐 약 14,700km를 동선했다. 제1차 선교는 (행13:1-14:28) AD 46-49경이다. 동반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었다. 주요 목적지는 구브로와 툴르키에였다. 동선 거리는 약 2,250km였다. 제2차 선교는 (행15:36-18:22) AD51-53경이다. 동반자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였다. 행선지는 수리아 툴르키에, 그리이스, 예루살렘이었다. 동선 거리는 약 4,500km였다. 제3차 선교는 (행18:23-21:26) AD54-58 경이다. 동반자는 디

오로는 팔레스틴, 사상적으로는 시오니즘(Zionism),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때가 됨에 성령께서 안디옥 공동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다. 비로소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등 열방과 온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그 특징은 첫째 조직화이

투보다 여러 사람이 전문화, 분업화, 조직화되어 팀워크를 이룰 때 뭔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성령께서 사도적 선교 모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 하지만 이 모델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쓰셨던 종들과 사역 구조가 달랐기 때문이다. 21세기 적합한 선교 모델을 무엇일까?

2-1. 대중적 선교 모델의 사례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1장에는 흩어진 사람들의 선교 이야기가 나온다. 첫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다.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피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나간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행 8:1). 빌립은 그들 중의 한 명이자 7집사의 일원으로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행 8:5, 12, 35, 40). 두 번째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

전11장에 나온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0-21). 이상 두 번에 걸쳐 언급된 흩어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유대사 문화권(E-2)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E-3)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로마의 배부자인 고넬료(행 10:1-4),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행 18:24-28)가 나온다. 이

2-2. 대중적 선교 모델의 특징

대중적 선교 모델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도 수없이 있어 왔다. 신학자 브루스(F.F.Bruce)는 “영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 곧 고을(Gaul) 지방에서 온 상인들이었다”고 소개했다. 중세에는 모라비안 교도들과 바젤

도 자신을 선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조직이다. 파송교회나 선교단체 같은 기관이 없다. 셋째 의도이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누군가에게 보고 해야 할 책무도 없다. 넷째 방법이다. 획일적이지 않다. 직업 따라 이동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전파를 한다. 다섯째 재정이다. 후원을 받지 않고 자비량 사역을 한다. 풀뿌리 선교를 제창한 손창남 선교사는 “요리는 요리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노래는 가수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는 파송 받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준엄한 책무이다.” 백번 천 번 맞는 말이다.

맺음 말

위에서 보듯 사도행전에는 선교를 위해 사도적 모델과 대중적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모델은 하나님의 선교에서 이원적 사역 구조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였다. 단지 각각 은사와 소명을 따라 그 직업이 달랐을 뿐이다. 하지만 기독교회는 지나간 2천 년간 사도적 선교 모델을 근간으로 해왔다. 즉,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을 선택해 파송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선교에서 뒷집을 지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교는 인구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 오늘의 기독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익숙한 관습을 깨고 본질로 돌아가야



21세기 지구촌은 선교의 전, 후방이 없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 사도적 모델은 조직적이며 선택받은 소수를 통해 하는 선교사역이다. 대중적 모델은 자연적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일이다.

역(CAN : Creative Access Nations)은 물론이고 선교사 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지역(OAN: Open Access Nations)에서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회가 추구해야 할 선교적 방향은 무엇인가? 그 답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

1-1. 사도적 선교 모델의 사례

사도행전 13장~ 28장에는 바울과 그 팀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의 이야기가 나온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지역을 순회

모데와 누가 등이었다. 행선지는 툴르키에, 그리이스, 레바논, 이스라엘이었다. 동선거리는 약4,350km였다. 제4차 선교는 (행27:1-28:16) AD59-62 경이다. 동반자는 로마 경비병, 누가 등이다. 행선지는 이스라엘, 레바논, 툴르키에, 그레데, 멜리데, 시칠리아, 로마였다. 동선 거리는 약 3,600km였다.

1-2. 사도적 선교 모델의 특징

본문 행전 13~28장에 나타나는 선교 모델은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전까지는 복음이 지역적

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군대가 힘이 있는 것은 조직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세계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가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둘째 파송이다.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고급 인력인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가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자투리 남은 것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 않는다. 셋째 팀워크이다. 세상만사 모든 이치가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과 기관이 힘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선교는 각개전

전11장에 나온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행 11:20-21). 이상 두 번에 걸쳐 언급된 흩어진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지는 명확치 않다. 분명한 것은 저들이 유대사 문화권(E-2)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E-3)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로마의 배부자인 고넬료(행 10:1-4), 알렉산드리아의 아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행 18:24-28)가 나온다. 이

선교회 역시 대중적 선교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들은 모두가 자기직업을 가지고 생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 대중적 선교모델은 비 제도권 선교이다. 선교의 주체는 모든 성도들이다. 선교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다. 선교지역은 광범위하다. 조직은 없으며 자유롭다. 재정은 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파송교회는 따로 없다. 선교전략은 자유롭다. 복음의 수용성은 비교적 반발이 없다. 이 밖에 대중적 선교 모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정체성이다.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에

한다. 성경의 지침은 “모든 이가 모든 곳으로”라는 총체적 선교이다. 지상 과업은 선교사라는 대표선수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선교는 특별한 교회나 선교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임으로 파송되었던 그렇지 않든” 누구나 자기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일사각오(一死覺悟)의 정신(행20:24)으로 헌신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선교가 그러했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31강 연합국 전투, 갈렙 그리고 안식 (1) (여호수아10-24장)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가라'하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출 15:25, 16:4, 20:20/ 신 8:2,16, 13:3)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고전 10:13).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기브온은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강함에도 이스라엘과 화친하므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에 대진하자(수 10:1-5)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수 10:6).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용사와 더불어 전쟁을 위하여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수 10:8)고 하십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수 10:10)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어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은 자를 죽이셨습니다(수 10:11).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시므로(수 10:12-14) 하나님이 적군을 넘겨주



신 전쟁에서 (수 10:19) 승리를 거두고 다섯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죽여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수 10:20-27).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발뒤꿈치를 상하는 상처를 입겠지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창 3:15)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막게다'(수 10:28), '밍나'(수 10:29,30), '라기스'와 '게셀'(수 10:31-33), '에글론'(수 10:34,35), '헤브론'(수 10:36,37), '드빌'(수 10:38,39)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합니다(수 10:40). 또한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에

서 가사 그리고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수 10:41,42). 심장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범되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소통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군을 넘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진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증언은 '전적

인 타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앞서 설명한대로 모든 것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작아질 것인데 그들은 철저히 패역했기에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갈 것입니다.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시온의 거민 (시87:1-7) 찬 543장

고라 자손의 시편 87편은 히스기야 왕이 앗수르를 이긴 후 드린 찬양입니다. 바벨론 귀환 백성의 수가 적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보인 본 시편에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신약 교회의 부흥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교회에 특별한 사랑을 쏟으심을 봅니다. 시온을 사랑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둘째, 하나님을 아는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요 17:3) 교회는 바로 이것 위해 존재하고 이것이 모든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범세계적 구원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합(애굽), 바벨론, 두로와 구스(4-6)에서 지존자의 부름을 받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범세계적 구원의 물결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데로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화 부르짖는 기도 (시88:1-18) 찬 479장

믿음의 기도가 바른 기도임을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기도상황, 흑암이 친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14-18) 스테반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어두움도 헛것이 아니고 진실한 기도를 드러 기이한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의 세계입니다. 둘째, 기도의 목적. 이 성도는 주의 성품을 온 세상에 알렸습다. 주의 기사로 인하여 주를 찬송함으로써 주의 인자와 성실과 공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란 것입니다.(10-12) 기도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셋째, 기도의 확신. 시인은 하나님 상대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13)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앞에 달하리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응답을 체험합니다.

수 성도의 할렐루야 (시89:1-18) 찬 13장

다윗의 합창대장, 여두둔이 지은 시로 알려진 본문에서 우리는 유복자인 성도가 찬양할 이유를 발견합니다.(15) 첫째, 주의 인자 때문에 찬양합니다.(1-2) 인자란 사랑, 자비,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노래 중 노래입니다. 독생자를 주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주의 성실 때문에 찬송합니다.(14) 그 사랑은 성실의 배경에

서 나온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행동이 모든 언약의 기초이기 때문에 다윗은 인자와 성실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위를 견고케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의 권능 때문에 찬양합니다.(6-13) 그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한 것은 그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창조자요 섭리의 주이신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임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 언약을 기억하라 (시89:19-52) 찬 133장

에단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탄식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첫째, 에단의 고통. 그는 하나님의 진노(38-45)로 원수에게 휘방을 당하는 민족적 수난(46-52)을 탄식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영적 고통을 생각해 합시다. 둘째, 고난의 원인. 언약과 기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몰리치고 관을 땅에 던지시며 울타리의 보장을 모두 거두셨습니다.(38-45) 마치 엘리시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되었습

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불순종할 때는 밖에 버려진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버립니다. 셋째, 언약회복의 길. 여기 나온 언약이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으로 기름 부으심의 보증 공, 내주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은 영원한 보호, 영원한 승리, 영원한 회복을 보장한 것입니다.(영 1:1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언약을 맺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 람임을 확신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금 인생이 무엇이나? (시90:1-7) 찬 502장

40년의 광야생활을 포함한 120세의 일기에 보인 모세 기도에서 우리는 참된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하나님을 영원한 피난처로 삼도록 창조되었습니다.(1-2) 무에서 시작하였기에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을 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생은 잠깐 있다 가 돌아가는 티끌입니다.(4-6,10)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대로 인생은 지나간 어제며, 밤의 한 경점이며, 홍수가 쓸

어간 순간이며, 잠깐 자는 순간이며 신속히 지나가는 화살 같고 아침 풀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고와 슬픔으로 특징 짓습니다. 죄로 인해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자로만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만족함을 얻는 모세의 고백은(13-17)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의 본을 따릅니다.

토 주를 찬양하라 (시98:1-9) 찬 43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힌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만큼 찬양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를 세대로로 찬양해야 합니까? 첫째,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1-3) 자기 백성을 향하신 구원이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심을 본 시인은 그를 찬양합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하심이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만유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4-8) 그 구원 주는 온 땅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십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 거주하는 모

든 것이 그의 손에서 움직이는 것을 안 시인은 그 분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손 안에 있음은 아는 우리 역시 그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그는 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9) 역시 시인은 만유의 마지막에 의의 심판을 내다보고 그 분께 찬양합니다. 천히 임하시고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판단하실 그 분께 찬송해야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될 심판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갑시다.

교회음악 이야기(53)



윤임상 교수
(윌드미션대학교대학원)

험한 십자가 능력있네 (The old rugged cross made difference)

모세의 생애를 보면 참 특이한 대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대조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녀였던 그가 여왕의 아들이 되어 40년을 바로 궁정에서 지내며 그 시대 삶 속에서 "나는 모든것을 할 수 있다(I can do everything)"고 호령하며 애굽 사회를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이후 궁정에서 쫓겨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며 양떼를 지키는 자로 전락되면서 그 시대 삶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I can't do anything)"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시간이 되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대과업의 리더로 선택되었습니다. 말에 어울리고 소극적이었던 그는 그 시대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 (I can do everything in God)" 라는 고백이 이때 표현됩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모세의 이런 독특한 생애를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여왕의 아들이었다.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궁정에서 교육 받았으나 광야에 거했다. 목자의 지팡이를 가졌지만 무한한 능력을 갖췄다. 바로로부터 망명한 자였으나 하늘의 사신이였다. 율법의 증거자였으나 은혜의 선구자였다. 모압에서 홀로 죽었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를 장사 지내셨다." 이처럼 대조법을 사용해서 아주 적절하게 모세의 삶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극명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제기되고 있는 신학적 논쟁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해 고린도 서신을 쓰는 가운데 인사와 감사를 나누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거론한 뒤 바로 이어 십자가 역사의 진리를 이야기 합니다.

곡을 붙여서 1980년 찬송가로 발표하게 된 "십자가 능력있네(The old rugged cross made difference)"라는 곡입니다. 이 찬송은 윌리엄이 감리고 복음 전도자인 조지 버나드 (George Bernard 1873- 1958) 가 쓴 "갈보리 산 위에 (The old rugged cross)"를 레퍼런스 삼아서 만든 곡입니다. 그가 곡을 쓰게 된 동기를 "낙담과 실패에 찬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에서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였기에 나는 그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는 결의로 가사를 만들어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찬양을 깊이 되새기며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고통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래서 C. S. 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 는 "고통은 베일을 벗기고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역설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수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루이드 존스(Martyn Lloyd-Jones, 1899-1981) 목사님이 십자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세기에도 사람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대중에게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사도가 전파한 설교의 핵심이었다는 십자가의 역설을 그의 책 "십자가(The Cross)"에서 이야기합니다.

올해 사순절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깊이 새기며 그 복음으로 인한 진실의 깃발을 꽂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마땅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놀라운 대조, 즉 상실과 패배에 얽매인 삶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준 그 낡고 거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싶습니다.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80. 아버지의 남성상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에서는 남성이라는 성(性)을 '우월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낡은 주장 정도...

편의 증가나, 명예퇴직 또는 해외로 부인과 자식을 뒷바라지하며 소위 '기러기아버지'들의 정신적 소외는 현대남성들에게는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런 이미지의 변화와 현대남성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래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자녀들은 커서도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접촉 수용돌기라는 신경돌기가 흩어져 있어서 신체접촉을 하게 되면 상황에 맞는 호르몬이 두뇌에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신체접촉은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며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많이 안아주고 레슬링이나 씨름 같이 신체접촉이 많은 놀이를 함께 하면 아들은 강한 남성상을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접촉지향적이기 때문에 딸은 더 많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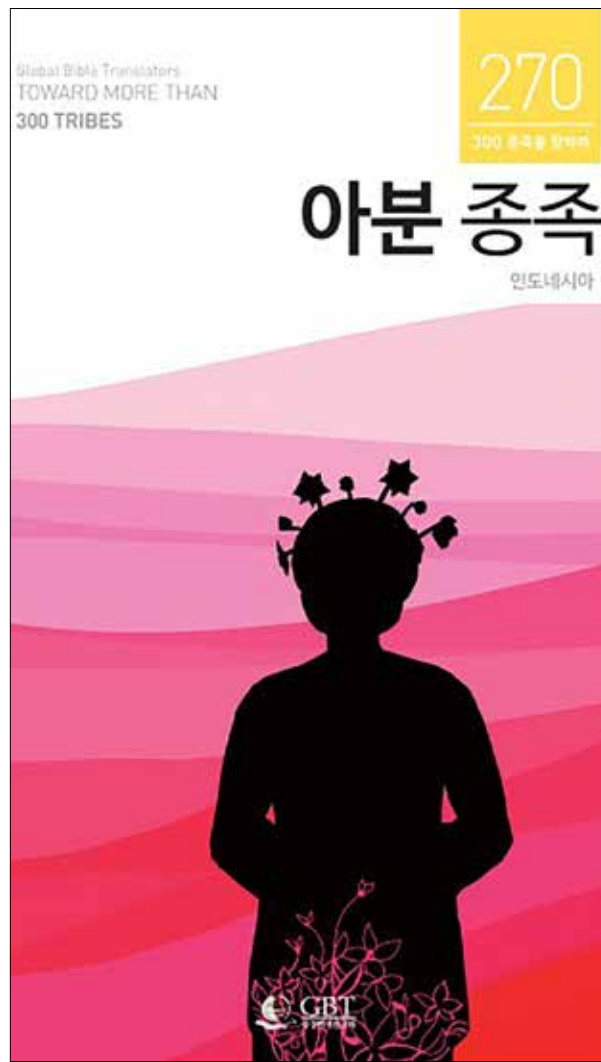
아버지의 남성상을 경험하고 자란 딸들은 여성으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답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출소녀의 90% 이상이 아버지와의 접촉 결핍증 환자이며, 미혼모의 70% 이상이 아버지 부재 속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성경적인 남성상은 (1)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불신자)와는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주님의 결혼원칙을 따르는 길입니다. (2)자신이 아내의 머리이며 가정의 영적지도자라는 신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부부사이에 주신 자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4)자신이 가정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5)가족들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성화되어가는 약화된 아버지의 남성상 회복이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는 첫걸음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남성상을 회복하여 아들에게 전수해야 하며, 딸에게는 성경적 남성상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함께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물론 딸은 자신이 먼저 훌륭한 아내감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네시아

▲ 종족명 아분 종족

▲ 인구 약 3,000명

▲ 종교 민속 종교 40%, 복음화율 60%

▲ 복음매체 신약 번역됨(2004), 구약 번역 필요, 복음 매체 있음

▲ 종족프로파일 새머리 반도의 북쪽에서 18개 마을과 고립된 몇몇 소부락에 퍼져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외부의 접촉도 적었는데 이들이 식인 풍습을 가지고 있던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 기도제목 1. 아분족이 번역된 신약 성경과 복음 매체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도록 2. 아분족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3. 잘 훈련된 현지인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믿음 안에 굳건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나눔 코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성실하십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16:7)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16:13)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진리 안에서 생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주님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성령님의 내주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림이 있는 영적 오순절의 삶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초대 교회의 출발도 오순절의 삶으로 출발 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삶에 모든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끌어 가는 능력 이요 힘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며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섭리가 유일하게 활동하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님만이 인도하실 권한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 매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에 성실해야 합니다. 성도의 성실은 모든 것을 주님의 공로로 영광을 그분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

은 다 내 것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16:13-14) 성도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며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0%임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말 할 때에도 나를 숨기고 주님만 온전히 나타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체험되어진 신비한 은혜까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신근규 목사 (좋은마을교회 담임)

까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고후 12:2)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주님 뒤에 숨기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이 아닐까요? 오직 은혜! 오직 주님께만 영광!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에 충만케 하소서.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렐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렐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렐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증명서
출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렐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Youth Pastor 청빙공고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뉴욕선교교회에서 Youth Pastor를 모집합니다.

- 1. 이중언어 사역 (영어설교 가능하신 분)
2. 파트타임 사역
3. M.Div.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신 분
4.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신앙과 소명 간증문
3) Youth사역에 대한 비전

서류제출: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사례비 및 기타 청빙 관련 문의: 718-451-6348

The New York Mission Church located in College Point, Queens, New York is seeking a Youth Pastor.

- 1. Bilingual ministry (preach in English)
2. Part-time ministry
3. M.Div.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4. Documents to be submitted:
1) Resume and self-introduction
2) Testimony of faith and calling
3) Vision for Youth Ministry

Submit documents: newyorkmissionchurch@gmail.com

Inquiries regarding honoraria and other invitations: 718-451-6348

제 9회 신앙도서독후감 공모전 우수상

『믿음을 묻는 딸에게, 아빠가』를 읽고



임보라 (북가주새누리교회)

로서 얼마나 책임감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걸었는지를 보여준다. 스스로가 책에서 강조한 "생각없이, 관성대로 굴러가는 태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지만, 그렇기에 우리가 아버지 된 자로 마땅히 공부하고 가르칠 것들이 자동적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땅에 함께 서 있는 자로, 한 발 먼저 다녀본 자로 우리는 아이에게 역사와 전통의 흐름을 일깨워주고 함께 발맞춰 걷는 법을 배우며 옳은 곳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책 읽는 내내 자각하게 되었다.

저자는 세상이 지적하는 기독교 역사의 폭력성과 호전성에 눈 가리고 아웅하기보다 해석의 역량이 낡은 오해와 실천적 방임이냐는 실패를 직시하고 기독교의 소망과 성찰을 동시에 설교했다. 또한 오늘날에 도무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혐오와 배제의 통로가 되는 동성애 논쟁과 전쟁 및 난민 문제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뚝뚝 그려 말하지 않고 분별력 있는 어조로 특정한 입장과 태도를 제시한다. 단,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연역적 사고나 편협한 경험에 의해 도달된 결론이 아니라 깊은 관심에서 우리나라에 방대하고 질실한 연구의 끝에 맺어진 열매들을 정성껏 바꾸기에 담아 전달하는 식이라, 설득이 강요된다는 느낌보다는 친절하게 안내받는다는 인상을 받으며 읽어나갈 수 있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써왔던 학자들의 탐방을들을 모아 그 중에서도 가장 권위있고 무결

한 내용들을 체에 걸러 고운 가루를 내어 딸에게 먹여주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다. 특히, 가장 까다롭고 난해한 전쟁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평화와 이상을 꿈꾸고 이루어 가는 궁극적 소망을 놓치지 않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거나 현실의 냉혹함과 부조리의 거대함에 짓눌려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자는 절박한 메시지가 저자 스스로에게도 계속해서 되뇌이는 다짐처럼 느껴졌다.

그의 글을 읽으면 입을 수룩 나는 저자가 균형은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균형감은 고백 풀린 열정으로 하나님에 앞서, 혹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들이 이제껏 많은 그리스도들에게 심겨놓은 기독교적 불편함과 불쾌감을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급하게", "합부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며 모범을 보이는 삶의 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진리의 불변함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 "옛 자가 철저히 죽는 '정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도 일깨워주었다.

사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의 중심에는 분쟁과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슬프게도 많은 피흘림에는 종교 갈등과 성서의 오남용이 맞물려 있었다. 이는 곧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사회악이며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요인이라는 인식을 팽배하게 만

드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죽고 썩혀져 끝없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들었다. 결국,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은 극단주의와 탐욕으로 인한 신앙의 왜곡, 그리고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순종하는 무지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곧 책 전반에 걸친 저자의 접근이다. 안타깝게도 굵은 길로 접어들어 오묘되어 흐르는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오늘날의 교회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딸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살려낸 딸이 가짜 복음에서 시선을 거두고 복음의 진수를 누리며 자기 자신과 그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해방되고 복음 안에서 재창조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살려내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문장을 써내려간 듯 보인다.

위낙 방대한 양의 글을 읽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연구한 까닭에 딸의 단순한 질문에도 많은 신학자와 신학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지만, 그마저도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나 고차원적인 답변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파도파도 끝없이 결코 정복될 수 없는 무한대로 풍부한 영적 자원이기에 다양한 해석학적 위치와 사유의 범위가 연결되고 맞물리며 발견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농축하여 표현하려던 아쩔 수 없었으리라 생각이 든다. 아무리 내가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신앙 선배로서 충고의 말을 건넬 때도 우리의 불완전함과 무의식적 치우침은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든 신앙의 반발심과 결림들을 만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 역시 겸허

하게 배우는 입장에서 먼저 깨우쳐나간 과정을 공유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각기 걸어가는 고유한 길에서 빛어가는 독특한 신앙의 신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깨우침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책이나 사랑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쉽사리 현실의 교회와 신앙의 실망스런 면모에 낙오하고 복음 자체를 폄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필립 양시와 그레고리 보이드처럼 기독교에 대한 합리적(?) 회의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 따뜻한 길잡이를 자처하는 작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이 책을 읽는 내내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의 대가를 치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소중히 밟아 걸어 나가길 권고하는 저자의 진심이 문자를 넘어 가슴 깊이 전달되었다. 심자가 반드시 가로와 세로의 접점을 가로지르며 존재하듯, 심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네 인생도 반드시 두 가지 길을 성실하게 걸어 나가야 할 터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각각 온전하게 한 인격에 담겨있듯이 우리도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을 품고 살아가야 할 운명과 능력을 부여받았다. 치우침없이 그 심자가의 길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을 한 방울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가슴으로 새긴 그 신앙은 역사와 문화의 옷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더욱 강력한 힘과 빛으로 세대의 세대를 이어 뻗어나갈 것이다. 그 희망으로 나의 다섯 살 난 딸의 사춘기와 청년의 때와 장성하고 노쇠한 시절을 거쳐 영원히 이르는 모든 순간을 기대해본다.

베드로 진서 17

영성을 위하여 2

은퇴 후 긴장이 풀렸다. 아내는 신경 쓸 일이 없으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책임에서 벗어나니 그렇게 훌훌 가벼운가 보다. 그 말을 들

때 묵회할 때도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으나 아내를 얼마나 힘겹게 했을까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나 역시 그런 훌훌 가벼운 마음이 든 것도 사

실이다. 당회나 제직회 때 인간이 갖는 갈등이나 성도들 개인이 갖는 문제를 목사 개인의 책임처럼 느끼고 기도하는 일도 큰 몫이고 무엇보다 설교의 부담이 가장 컸다 하겠다.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나였지만 그래도 한 편이 설교는 속칭 산고를 통해 이뤄지니 어찌 힘들지 않았겠는가?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말씀을 하지 않아 잘 모른다. 그러나

회자되는 이야기로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목회 시절 새벽기도회가 너무 힘이 들어 은퇴 후에는 새벽기도회를 나가시지 않는 분이 많다고 한다. 이해가 된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냥 새벽기도회를 나가고 그것도 정장을 하고서.

아울러 말씀 묵상과 설교 준비에 시간을 바친다. 한 목사님은 설교할 곳도 없으면서 무슨 설교를 만드느냐고 하

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던 일이니 만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묵회할 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영성! 영성! 하고 부르짖었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은퇴하면 영성은 필요 없는가?

revpeterk@hotmail.com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초긴급!!!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청원서 서명운동

11월 선거에 주민투표 발의안 상정을 위한 공식 법적 청원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민 발의안이 통과 되면?

- 1. 안전: 공립/사립학교와 대학에서 화장실/샤워실/라커룸을 출생성별로 사용하게 함
2. 공평: 7학년부터 여학생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남성 참가 불허
3. 학부보 권리 보호: 학교에서 학생을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타고난 성별 보호: 학교에서 학부모 허락없이 학생에게 젠더 관련 건강 및 정신 검진 혹은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의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비에서 나오는 자금 사용 금지

California의 악법들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부모의 권리를 되찾기

몇 개의 서명이 필요할까요?

-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 필요한 유효 서명 숫자: 550,000개
무효화 될 서명들을 고려하여, 총 700,000개의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 70,000개 이상의 싸인
한인 서명 마감: 2024년 4월 13일
서명용지 및 설명서 보급장소
OC: 은혜한인교회, 갈보리선교회, 사우스베이: 토렌스 조은교회
LA: 미주성시화 운동본부, LA 동부: 선한목자교회(Chino Hills)



서명에 관한 안내나 서명용지를 받기 원하시면 서명운동본부 (310-995-3936, 323-578-7933)나 TVNEXT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서명운동본부

고문: 송정명, 김영길, 한기형, 최학량, 최홍주, 민중기, 김인식 (이상 목사)
대표대회장: 한기형
공동대회장: 강준민, 고승희, 고창현, 고태형, 고현중, 구봉주, 국윤권, 권혁민,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중구, 김준식, 김지훈, 김태형, 김한호, 김호용, 남강식,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규성, 박성규, 박성근, 박용석, 박은성, 박한성, 방상용, 백정우, 손창민, 송병주, 신동철, 신승훈, 신원규, 안 환, 오명찬, 우영화, 윤대희, 이 서, 이영선, 이정현, 이종우, 임성진, 주혁로, 지용덕, 진유철, 최성광, 최 혁, 최희규

각지역 대표: 최영봉, 박재만, 이필성, 오기현, 박선호, 김우준, 전지승, 류수열, 김형길
지도위원: 남가주지역 모든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태오, 새라 김 (TVNEXT 대표, 408-309-4084)
실행위원장: 강순영 (310-995-3936), 심상은 (714-722-4805)
사무총장: 강태광 (323-578-7933)